

## 부양책을 둘러싼 논란 속 강보합 마감

### TSA, 미국 내 항공 이용객수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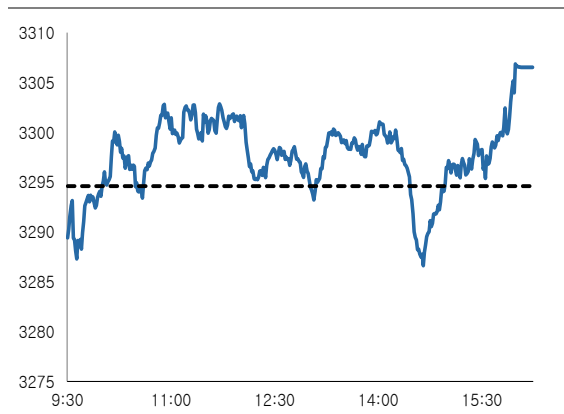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항공, 에너지, 호텔, 반도체 강세

미 증시는 전일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와 제약,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 출발. 이후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 부각되며 재차 하락. 이후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였는데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대형 기술주와 헬스케어는 약세를 보인 점이 특징(다우 +0.62% 나스닥 +0.35%, S&P500 +0.36%, 러셀 2000 +0.69%)

미 증시는 ①부양책 협상 ②고용 불안 ③개별기업 이슈 등으로 변화. 먼저 미 민주당 지도부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과 추가 부양책 협상 후 '생산적인 회의' 라고 주장해 기대심리를 높임. 그렇지만 펠로시 의장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주에 합의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 협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코로나 재 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높아질 수 있어 가계 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 실제 코넬대의 여론조사 결과 6 월 말 이후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경제 재개로 고용되었던 노동자중 31%가 재 해고 당했고 26%가 해고 당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발표

한편, 틱톡을 둘러싼 미-중 마찰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임. 중국 언론들은 MS 의 틱톡 인수 관련 미국에 경고하는 등 반발. 특히 트럼프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 이런 가운데 틱톡 인수 관련 MS(-1.50%)가 유일한 인수자가 아니며 여러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MS 는 부진. 반면, TSA(미 교통 안전청)가 미국 내 공항 이용객 수가 80 만명에 근접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 영향으로 항공은 물론 호텔, 소매, 에너지 업종이 강세. 더불어 AMD(+9.49%)도 인텔 영향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자 급등했고 여타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며 지수 조정을 제한. 대체로 차익 욕구가 높은 대형 기술주, 제약 바이오는 부진한 반면 경기 민감주 강세가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279.97	+1.29	홍콩항셍	24,946.63	+2.00
KOSDAQ	835.35	+0.94	영국	6,036.00	+0.05
DOW	26,828.47	+0.62	독일	12,600.87	-0.36
NASDAQ	10,941.17	+0.35	프랑스	4,889.52	+0.28
S&P 500	3,306.51	+0.36	스페인	7,021.60	+0.67
상하이종합	3,371.69	+0.11	그리스	628.50	+2.18
일본	22,573.66	+1.70	이탈리아	19,613.95	+1.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경기 민감주 강세

MS(-1.50%)는 틱톡 인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과 경쟁 확산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알파벳(-0.64%)은 핏빗 인수관련 유럽과 호주의 반독점 조사 소식이 유입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페이스북(-0.85%)은 틱톡을 MS나 여타 대형 기술주가 인수할 경우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과거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틱톡 인수를 언급했었다. AIG(-7.53%)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했다.

반면, 미 교통 안정청에서 미국 내 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잉(+1.73%), 델타항공(+1.87%), 스피릿 항공(+7.35%) 등 항공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는 힐튼(+4.79%) 등 호텔업종, 부킹닷컴(+1.51%) 등 여행주, 카니발(+5.13%) 등 크루즈 업종과 함께 TJX(+2.68%), 갭(+2.59%), 코스트코(+3.18%), 월마트(+1.81%) 등 소매 유통업종의 강세를 촉발시켰다. AMD(+9.49%)의 경우 제프리스가 인텔 영향으로 사업 개선 기대가 높으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으며 마이크론(+1.81%), 브로드컴(+2.23%)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NVIDIA(+1.98%)는 9월에 차세대 비디오 카드 출시 할 것이라는 보도로 상승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83%	대형 가치주 ETF(IVE)	+0.54%
에너지섹터 ETF(OIH)	+2.99%	중형 가치주 ETF(IWS)	+0.47%
소매업체 ETF(XRT)	+1.58%	소형 가치주 ETF(IWN)	+0.93%
금융섹터 ETF(XLF)	-0.41%	대형 성장주 ETF(VUG)	+0.29%
기술섹터 ETF(XLK)	+0.26%	중형 성장주 ETF(IWP)	+0.2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8%	소형 성장주 ETF(IWO)	+0.43%
인터넷업체 ETF(FDN)	+0.37%	배당주 ETF(DVY)	+0.39%
리츠업체 ETF(XLRE)	+1.4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4%
주택건설업체 ETF(XHB)	-0.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2%
바이오섹터 ETF(IBB)	-0.64%	미국 국채 ETF(IEF)	+0.34%
헬스케어 ETF(XLV)	-0.44%	하이일드 ETF(JNK)	+0.04%
곡물 ETF(DBA)	-0.35%	물가연동채 ETF(TIP)	+0.22%
반도체 ETF(SMH)	+1.45%	Long/short ETF(BTAL)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9.51	+2.46%	-0.08%	+1.47%
소재	382.36	+1.33%	-0.34%	+4.09%
산업재	609.97	+0.27%	+0.78%	+5.17%
경기소비재	1,148.91	+0.82%	+2.73%	+5.45%
필수소비재	649.09	+1.36%	+1.12%	+5.76%
헬스케어	1,235.79	-0.45%	+0.34%	+4.19%
금융	398.07	-0.44%	-0.10%	+4.45%
IT	1,995.05	+0.22%	+7.43%	+6.99%
커뮤니케이션	192.29	+0.34%	+2.20%	+2.81%
유틸리티	308.88	+1.07%	+0.54%	+6.72%
부동산	224.53	+1.36%	+0.75%	+2.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부담스러운 미국 경기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8%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33%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3.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대형기술주 및 제약 바이오 업종은 차익 욕구가 높아지며 하락한 반면 공항 하루 이용객수가 80 만명에 근접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이용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물론 작년 하루 270 만명 내외의 수치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3 월 20 만 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개연성을 높인다.

한편, 최근 코로나 재 확산으로 미국의 고용이 다시 위축되었다는 여론 조사 결과 및 카드 사용을 기반으로 한 소비 지출도 정체 되었다는 소식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아지며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에 대해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 후반 미국 고용지표 결과 및 미국 부양책을 주시하며 업종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공장재 수주 예상 상회

6 월 미국 공장재 수주는 전월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비록 지난달 발표(mom +7.7%)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mom +5.2%)를 상회한 결과였다. 변동성이 큰 운송을 제외한 수주도 전월 대비 4.4% 증가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금, 종가 기준 사상 첫 2천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베이루트 대규모 폭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공항 이용객 수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 특히 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상품선물시장으로 수급이 몰린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2% 가까이 상승했다.

달러화는 부양책을 둘러싼 협상에 눈이 쏠린 가운데 협상 지연 우려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미-중 마찰이 확산되고 미국 고용 불안 심리가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되며 엔화 및 스위스 프랑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추가 부양책 협상 관련 이번 주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펠로시 하원 의장 발언과 므누신 재무장관의 언급 등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틱톡을 둘러싼 미-중 마찰이 격화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6 월 말 이후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경제 재개로 고용되었던 노동자중 31%가 재해고 당했고 26%가 해고 당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 후반 있을 고용지표 부진 우려도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미국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중 마찰 확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0 달러를 상회하며 마감했다. 은 가격도 6% 넘게 급등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경기 둔화 우려로 혼조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7%, 철근은 0.6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1.70	+1.68	+1.61	Dollar Index	93.278	-0.28	-0.45
브렌트유	44.43	+0.63	+1.88	EUR/USD	1.1797	+0.30	+0.69
금	2,021.00	+1.75	+2.91	USD/JPY	105.73	-0.21	+0.61
은	26.028	+6.60	+7.11	GBP/USD	1.3068	-0.05	+1.05
알루미늄	1,770.00	+1.03	+2.67	USD/CHF	0.9135	-0.47	-0.48
전기동	6,453.00	-0.57	-0.37	AUD/USD	0.7158	+0.48	0.00
아연	2,339.50	+0.67	+4.14	USD/CAD	1.3333	-0.43	-0.35
옥수수	320.25	-2.51	-2.95	USD/BRL	5.2781	-0.83	+2.34
밀	508.25	-2.45	-2.91	USD/CNH	6.976	-0.09	-0.42
대두	881.75	-1.62	-0.65	USD/KRW	1194.10	+0.06	-0.23
커피	123.45	+2.45	+9.64	USD/KRW NDF1M	1193.50	+0.06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505	-4.90	-7.37	스페인	0.280	-5.20	-7.20
한국	1.305	+0.30	-2.00	포르투갈	0.295	-4.70	-6.80
일본	0.018	-0.80	-0.50	그리스	1.039	-4.20	-3.00
독일	-0.553	-3.00	-4.50	이탈리아	0.946	-6.00	-6.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